

第4回 高麗佛畫 傳統紙花 再現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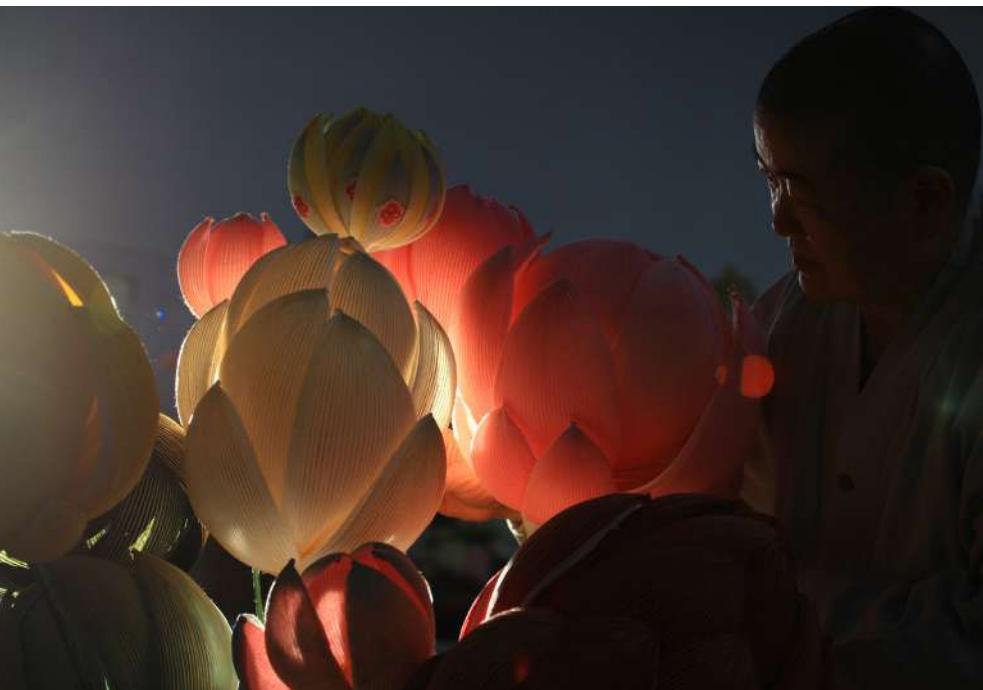


佛教紙花

손끝에서 피어나는 연화장세계



第4回 高麗佛畫 傳統紙花 再現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第4回 高麗佛畫 傳統紙花 再現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佛教紙花

손끝에서 피어나는 연화장세계



전시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세계
후원 : 서울특별시,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일시 : 2018년 3. 29~ 4. 1
장소 :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목 차

- 09 치사
- 10 측사
- 11 인사말
- 12 약력
- 14 1. 고려불화 재현작품
 - 1)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
 - 2) 수월관음도 일본 장락사
 - 3) 수월관음도 일본 공산사
 - 4) 수덕사 벽화
- 32 2. 불교 생활지화
 - 1) 상단지화
 - 2) 중단지화
 - 3) 하단49재
 - 4) 자당생일기념
 - 5) 추도식
 - 6) 고깔

致 詞

지화(紙花) 장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불교의례를 봉행할 때 행하는 불가의 전통문화의 한 의식입니다. 불교의 이 전통 문화 의식은 불교의 꽃이라 할 정도로, 꽃의 가치와 역할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은 불도량의 장엄함을 드러내면서 의례를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양의 형태로 꽃의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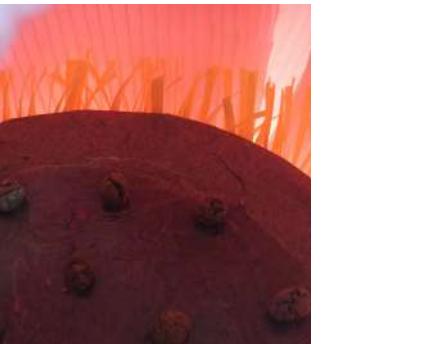
직접 손으로 꽃을 피워 부처님께 올리는 지화(紙花)는 지극한 정성이 수반되는 숭고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명 스님은 이런 지화를 매년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열정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조선시대·현대 등 시대별로 연구 재현하여 조계종의 전통지화의 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어렵고도 위대한 일을 해 오시는 정명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불화는 불교 역사상 최고의 꽃을 피운 귀족불교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그 고려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지화를 현대에 재현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투자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불교 문화유산이면서 전승되어야 할 불교예술의 한 장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종단은 불교지화를 불교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불교지화는 설단 장엄등 의례를 거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엄물로 신앙적 가치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것이기에 불교무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전승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정명 스님은 크나큰 원력으로 고려시대 불화에 그려져 있는 꽃 장엄을 전통지화로 재현하시고, 또 약 70년 전 지화가 마지막으로 꽃 피웠던 시절에 선조들의 혼이 묻어 있는 지화사진을 찾아서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불교의 지화 맥을 이어가는데 큰 가치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시 준비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해 주신 정명 스님의 원력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아름다운 지화가 온 세상에 꽃 피워지기를 기원합니다.



祝辭

정명스님 지화의 문화재적 의의

지화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덕왕 때 재양을 쫓기 위해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는 산화공덕 의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고려 시대에 지화는 국가의식이나 궁궐의식에서 중요한 장식문화로서 전통예술이었다. 조선 시대의 지화는 궁궐의례에서 중요한 장식물로 사용했고, 민간에서도 널리 쓰였다. 오늘날 지화는 산업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를 맞아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다. 궁중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하던 지화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나 불교에서는 그 명맥을 겨우 이어오고 있었다.

사라져 가는 지화의 맥을 잊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살려내, 그야말로 꽃을 피워낸 이가 정명스님이다. 스님은 어려서 출가해 큰 스님들이 지화를 접할 때 뒤에서 심부름하면서 지화에 눈을 떴다.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지화를 접어 장식할 만큼 지화를 좋아했다. 진우 보운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은 정명스님의 열정과 뛰어난 손재주를 보고 지화 접는데 소용되는 도구들을 모두 물려주었다.

정명스님은 사라져 가는 지화의 맥을 잊는 것은 물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단절된 천연염색을 재현해낸 업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화공 안료가 유입되어 민간이나 불교계에서도 화공 안료로 염색하여 지화를 접는 일이 보편화 되어있었다. 나는 여러 해스님이 천연염색을 재현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우직하게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행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스님은 관습적으로 ‘꽃일’을 반복하지 않고, 창의성을 더하여 끊임없이 전통의 창조적 발전을 꾀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또 <불교 지화장엄전승회>를 조직하여 지화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등회에서 불단 장엄 도감을 맡아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전통을 선보이기도 한다.

스님의 지화는 단순한 지화가 아니라 전통을 잇는 생명의 맥으로, 수행의 몸짓으로 우리 앞에 선연히 펼쳐지고 있음을 보면서, 환희심과 함께 신심이 굳어짐을 느낀다.

김 용 택

(한양대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성보위원)

人事

먼저 2017년 2018년 서울국제 불교박람회에서 두 번이나 큰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불교 지화에 관심과 신심으로 이끌어 주신 서울시의원 김경자 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도와주신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큰 힘과 불교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전시는 30년 동안 꽃을 하면서 고려 불화에 있는 꽃을 언젠가는 전시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불보살님께 항상 염원해 왔습니다. 그 소원이 서울시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생에 꽃이 아닌 고려 불화에 그려진 극락세계 꽃을 보고 만들기엔 역부족이라 백일동안 정토삼부경을 매일 독송하면서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을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꽃을 만들고 전시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들은 고려불화 관경16관경변상도, 수월관음도, 수덕사 벽화에 있는 꽃은 극락세계 꽃으로 고려 시대 귀족불교답게 최고의 꽃으로 품격이 있는 금은보화로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꾸며진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많은 불자들에게도 즐거운 극락세계를 조금은 전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미타불의 48대원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 마음으로 피운 아름다운 꽃을 지화로 표현하면서 저의 소원에 만족하고자 극락세계 꽃을 저의 미숙한 솜씨로 조금 시도한 것에 대한 마음이 불보살님께 죄송스럽고 이 꽃을 보아 주시는 모든 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만이 있는 극락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것을 알지만 이 현실에 행업을 잘 쌓음으로 그것이 극락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닐까요?

끝으로 불교의 꽃 일은 손끝에서 피어나 아름다운 꽃에 불보살님을 모시고 꽃을 흘려 공양하면 중생에게 꽃비가 법의 비가 되어 떨어지는 곳마다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2(2018)년 3월 29일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정명



약력

약력

- 2016년 : 대한민국 명인 제16-464호 불교지화
- 2016년 : 동국대학교 석사 졸업
- 2011년~(現)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 2009년 : 연등회 장엄도감 및 장엄연구회 상임연구위원
- 1986년 : 대한불교조계종 천고사 보운스님으로부터 지화장엄기술 전수

전시&세미나

- 2018년 : 제4회 고려불화 전통지화 재현 정명스님 개인특별초대전
- 2017년 : 제 정명스님의 지화전 '종이로 피운 공화의 세계' 개최
- 2017년 : 정명스님의 지화전 '종이로 피운 供花의 세계'
- 2017년 : 제2회 조선시대 감로탱화 재현 특별초대전
학술세미나 '불교지화장엄의 재조명' 개최
- 2016년 : 1580년 조선시대 감로탱화 재현전
- 2015년 : 정명스님의 불교지화장엄전
- 2015년 : 제2회 학술세미나 '전통불교지화 전승양상과 문화재적 가치' 개최
- 2014년 : 제3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꽃, 자연으로 물들다' 개최
- 2013년 : 제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염화미소' 개최
- 2013년 : 제1회 학술세미나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 개최
- 2012년 : 제1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원전 '깨달음의 꽃' 개최
- 2011년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창립전 '종이로 피어나다' 개최"

논문 및 저서

- 2016년 : 『한국불교 지화장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동국대)
- 2014년 : 『전통지화-한지천연염색』 정명지음, 조계종 출판사

행사&교육

- 2018년 봉은사 예수재 지화장엄
- 2018년 부여 수륙재 지화교육
- 2018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 지화장엄
- 2016년~(現) : 전통지화 봉은사 교육
- 2015년 : 조계사 수륙무차대회, 생전예수재 지화장엄
- 2015년 : 불교박람회 불교지화 전시 및 체험행사
- 2015년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지화교육
- 2014년~2017년 2월 : 전통지화 조계사 교육
- 2013년~(現) : 승려연수교育 인증 강습회 주관
- 2012년~(現) : 연등회 지화 제작 전수교육
- 2010년~(現) : 연등회 전통등과 전통지화 교육
- 2000년 : 큰스님(서암, 정대, 승산, 정일, 일봉, 대은, 지관, 녹원스님) 다비식에 지화장엄
- 1995년~1997년 : 불교 케이블TV '정명스님의 향기 있는 꽃꽃이' 방송
- 1995년~1997년~(現) : 불교 육법공양연구회 지도
- 1995년~1997년 : MBC 문화체육관 만등만화 육법공양 대법회 개최"



正明스님 個人特別招待展



1)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

(14세기/일본 서복사 소장)
202.8cm × 129.8cm

'관경십육경변상도는 정토삼부경중 하나인
<관무량수경>의 <정종분>을 도해한 장면이다.

불교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열여섯 가지 관상법과 그 이후 나투는 아미타 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자세하게 풀어 그렸다. 가운데가 삼단
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품, 중품, 하품의 중생들이
연꽃에 연꽃으로 태어나고 있다.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아미타불 및 관음·세지勢至 등의 보살은 보배로 된 연꽃(寶蓮花)에 앉아,
사람이 임종에 이를 때 연좌(蓮臺)를 손에 들고 중생을 극락 국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수행자의 생명이 다하려 할 때(彼行者命欲終時), 아미타불 및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여러 권속들과 함께
(阿彌陀佛及觀音併勢至與諸眷屬), 황금연꽃을 가지고(持金蓮花), 오백의 화신불로 나타나(化作五百化佛),
그 사람을 맞이하신다(來迎此人)."

"수행자가 목숨이 마칠 즈음에(行者臨命終時), 아미타불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과 더불어 둘러싸고(阿彌陀
佛與諸比丘眷屬圍繞)...수행자는 이를 보고서 이미 마음에 큰 환희가 차 있고(行者見已心大歡喜),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니(自見其身) 연학좌에 앉아 있고(坐蓮花臺), 이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長跪合掌),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爲佛作禮), 머리를 들기도 전에(未舉頭頃),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하여(即得往生極樂世界) 연꽃이 곧바로 핀다(蓮花尋開)."

『관무량수경』에서는 또 연꽃이 피는 시간으로써 수행자가 쌓은 복덕의 선근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여 부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결정된다고 했다. 예컨대 상품의 상에 태어나는 자(上品上生者)에게는 연꽃이 하룻밤 지나자 곧
개화하고, 상품의 중생中生·하생下生의 사람에게는 연꽃이 하루(一日一夜)가 지나면 피고, 중품의 상에서
태어나는 자(中品上生者)에게는 연꽃이 곧바로 피며, 중품의 중생자에게는 칠일이 지나서 연꽃이 핀다.
하품의 하생자(下品下生者)에게는 사십구 일이 지나서 연꽃이 피고, 하품 중생자에게는 6겁劫이 지나야 연꽃이
피고 하품의 하생자에게는 12대겁(大劫)이 꽉 차야 비로소 연꽃이 핀다.

극락정토의 안과 밖 그리고 좌우에는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이 많이 있다. 10유순由旬, 20~30 내지 백천 유순에
이르는 연못도 있으며, 거기에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있다. 물은 맑고 가득 차 있으며 청정하고
향기로우며 감로처럼 맛이 달다. 연못은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황금 연못도 있으며 연못 바닥은 백색
은모래가 깔려 있다. 산호珊瑚 연못은 바닥이 호박모래(琥珀沙)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세 가지
보배(三寶), 다섯 가지 보배(五寶) 내지 일곱 가지 보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못도 있다.

연못가 언덕에는 단향목(栴檀樹)이 있는데, 꽃과 잎이 길게 늘어져 있고 향기가 넘쳐난다. 연못 위의 연꽃은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고, 푸른색 연꽃에는 푸른색 광채가 너울거리며 노란색 연꽃에는 노란색 광채가, 붉은색 연꽃에는
붉은색 광채가, 흰색 연꽃에는 흰색 광채가 춤을 추면서 온갖 색조가 서로 어우러지고 그 향기는 사람을 취하게 한다.

연못에는 일곱 가지 보배로 된 모래와 물이 서로 비추는데, 어떤 때는 미세한 물결이 서로 부딪쳐 돌아 흐르면서
서로 물을 뿌리고, 또 어떤 때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잔잔하게 천천히 흐르는 것이 사람의 심경과 일치한다.

정토에는 보배로 된 연꽃이 널리 불세계에 가득하고, 보배꽃마다 광명이 있고 푸른색·노란색·흰색·검붉은색
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깔과 광택이 빛나는 것이 보배꽃마다 모든 부처님들은 백 천 줄기의 광명을 방사
하고 널리 시방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부처님의 정도에서 의지하게 한다.



관경심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 재현
360x400cm

나무, 연못에 물과 칠보, 악기, 새, 연못 속에 땅과 산호, 연꽃과 잎 아래 아미타불의 공덕, 기운과 원력의 기, 연화화생 등



반월형 삼단구성

모란
70x50cm작약
70x50cm연화
70x50cm

아미타불 화현한 새

공작
90x100cm

학
80x85cm

공작
95x80cm

학
75x45cm



깨달음의 나무와 중종 무진한 보주
180x85cm



연못 속에 산호와 칠보



2) 수월관음도 일본 장락사



정병에 버드나무
70x50cm



대나무
15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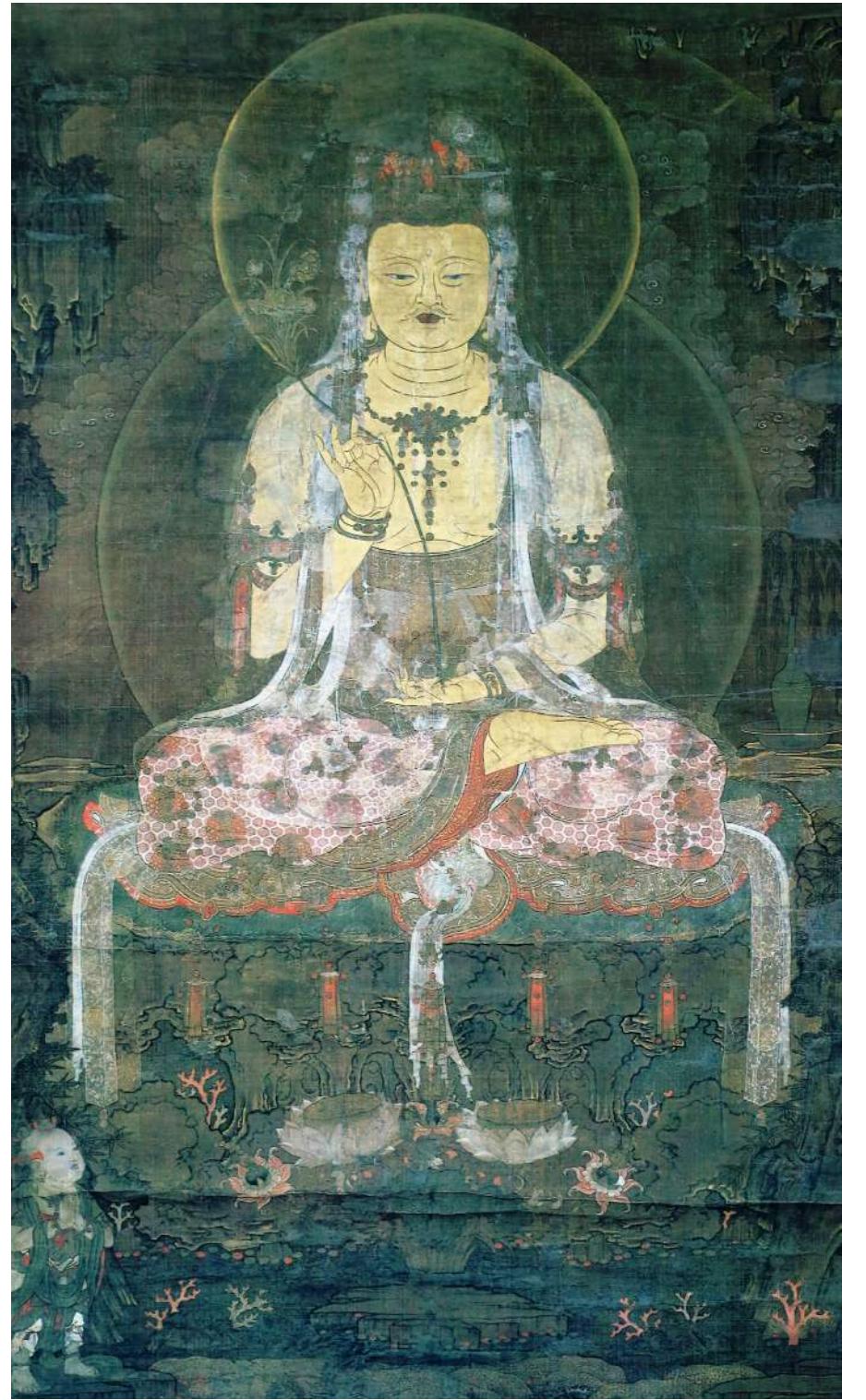
연잎 속에 모란
70x50cm



수월관음보살 밟아래 연화
60x30cm



연봉
60x30cm



3) 수월관음도 일본 공산사

연화
90x55cm지물연화
100x35cm



4) 수덕사 벽화, 야생화모사도
117x201.5cm

4) 수덕사 벽화

수덕사 대웅전 벽화 내 수화도(水花圖),
야화도(野花圖) 지화 재현

1937년 수덕사 대웅전 해체 수리공사 중 발견
(실물은 6.25 동란으로 파손, 당시 임천(林泉)의
모사도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월형 (모란)
80x90cm



4) 수덕사 벽화, 수생화모사도
116x20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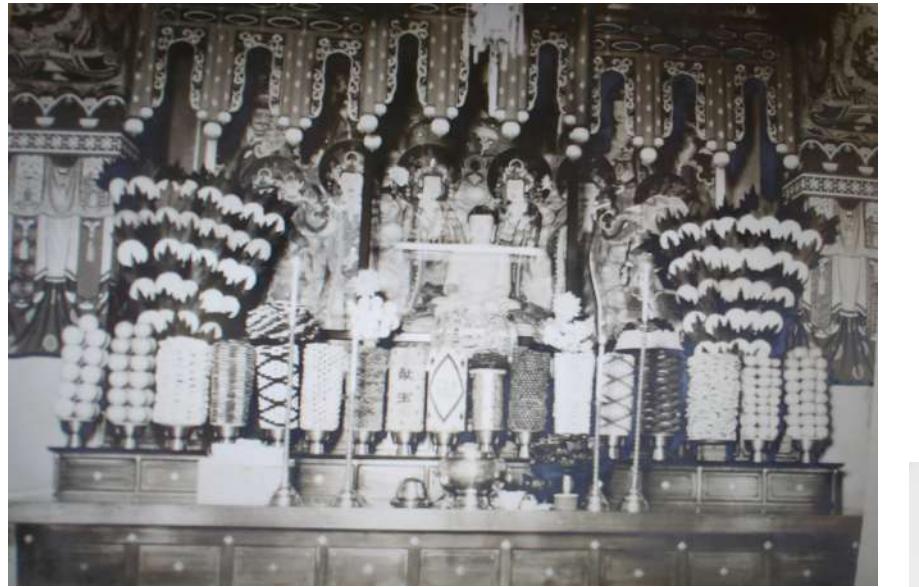
반월형 (연화)
80x90cm

불교 생활지화

02



1) 상단지화



1950년 전후 서울 보문사 법당

곱슬국화 바구니
50x50cm수팔연(연봉, 당국화), 팽이난등
80x40cm국화 부채난등
80x90cm



2) 중단지화



수팔연
80x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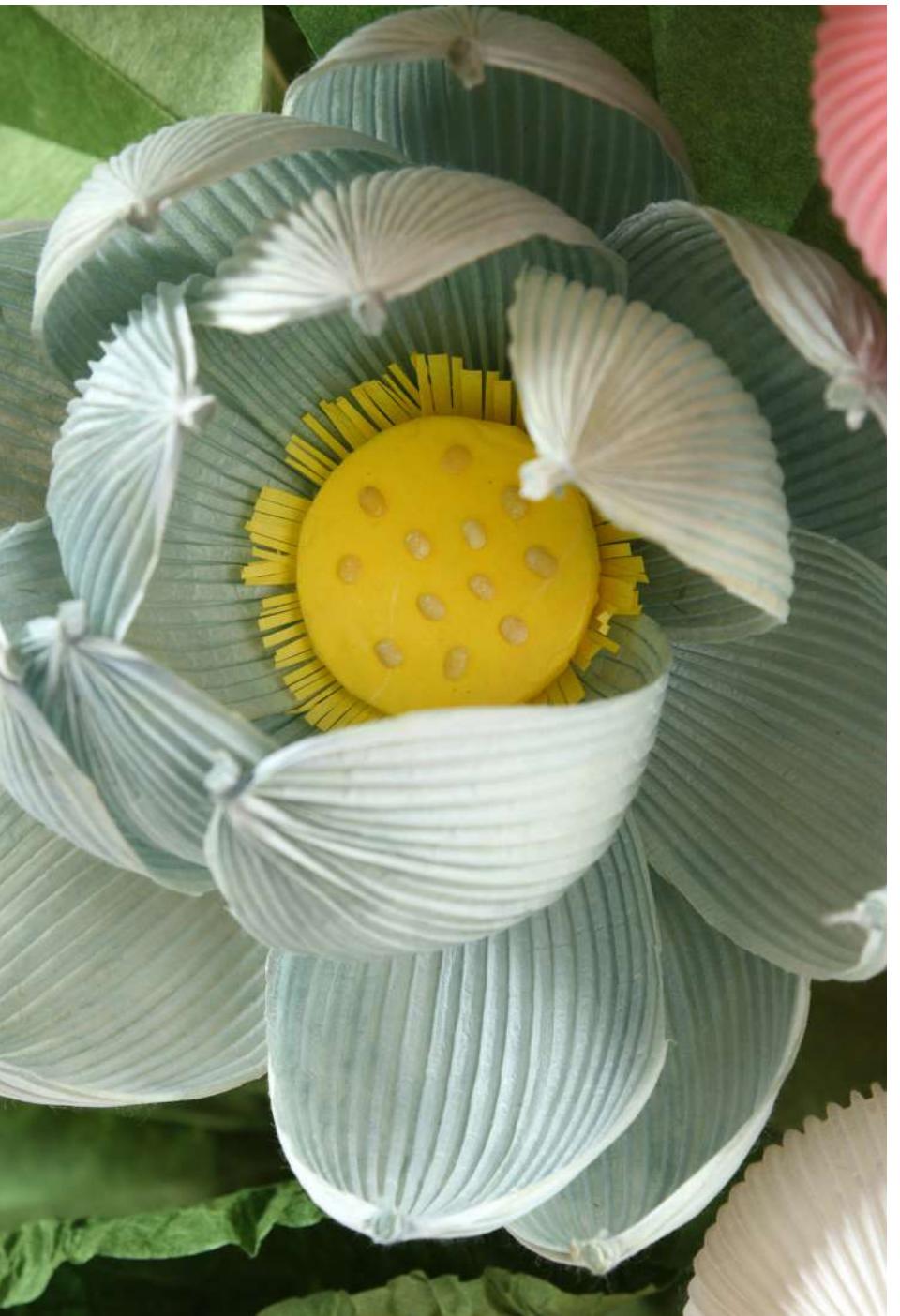
3) 중단지화



다리화
90x60cm



나발화
90x60cm



3) 하단



1950년 전후 스님49재
서울 보문사 법당 영단



4287년 (1954년) 자당생일기념
2월 10일 소림사



재단 부재난등 좌우, 중앙 구품연화, 위폐, 고임새
90x60cm



매화, 국화
70x60cm



연화, 국화
80x50cm



1957년 고 해공 신의희선생 1주기 추도식
부산 소림사에서



1950년 전후 불교행사 때 무용단



110x70cm



130x50cm



110x70cm



고깔, 모란
30x40cm



발행일 불기 2562년 3월 29일
포토(주병수, 이규영, 최배문, 문용백)



제4회 고려불화 전통지화 재현

정명스님 개인특별초대전

